



말 마라톤 해변 질주

지난 9일 신안군 임자면 대광 해수욕장에서 열린 '제5회 국민생활체육 전국 지구력 승마대회' 10km 부문 참가선수들이 해변을 힘차게 질주하고 있다.

/신안=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균핵병 확산 오디 재배농가 비상

광산·함평지역 생산량 급감...올 재배면적 절반 수확 포기

본격적인 오디(뽕나무 열매) 수확철을 맞은 가운데 광주 광산구와 함평 등 일부지역 오디 재배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균핵병에 감염돼 하얗게 변한 오디.

다"고 말했다. 오디 균핵병은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아닌데다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도 아니어서 농가들은 보상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함평군 나산면 수상리 월현마을 역시 올해 오디 균핵병이 번져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30%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안현순(58) 이장은 "전에 없던 균핵병이 지난해부터 심해져 친환경 인증을 받아 제대로 방제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오디농사를 망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황운희기자 hwang@

“정치권·기업 모두 경제발전 힘 모을때 여수엑스포 성공 위해 적극 나서겠다”

손경식 회장 등 여수서 전국 71개 상의회장 회의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전국 71개 상의 회장들이 "최근 세계 경제의 불안에 따른 수출 둔화와 내수부진으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정치권,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우리 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상공계의 의지를 담아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효율 극대화,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심장섭 여수상의 회장은 "지금의 국내·외 경제환경의 위기로 인해 향후 우리 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기업의 적극적인 체질 개선과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열정을 한데 모아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전국 혁신도시협, 나주역 KTX 정차 건의문 채택

전국 혁신도시협의회는 최근 강원도 원주시청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가 위치한 나주역에 KTX가 반드시 정차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국 혁신도시협의회는 "KTX가 나주역에 정차하지 않는 것은 혁신도시 활성화와 전남 서남부권 거점역 위상 정립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들이 불편한데 과연 혁신도시로 내려올 수 있겠느냐"며 KTX 나주역 정차 확정을 촉구했다.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이재만 대구 동구청장은 "김천 혁신도시를 김천 구미역 신설이 확정됨에 따라 혁신도시가 선정되었고, 진주 혁신도시는 도시 활성화를 위해 2012년 말에 진주역에 KTX가 정차할 계획"이라며 "현재 정차하고 있는 나주역을 폐쇄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가 없다"며 나주역 정차 배제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임성훈 나주시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한 전국 10개 지역 혁신도시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최근 강원도 원주시청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KTX가 나주역정차를 비롯한 8개항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전국 혁신도시협의회는 전국 10개 지역에 건설 중인 혁신도시의 14개 시·군·구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됐다.

/중부취재본부=손영철기자 ycon@

‘진도 뽕할머니’ 지역 전통 소재 캐릭터 사업 선정

설화를 바탕으로 한 '진도 뽕할머니' 등 전남의 숨은 문화자원이 캐릭터로 새롭게 태어난다.

(재)전남문화산업진흥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모한 '지역 전통소재 캐릭터 개발 지원사업'에 진도군의 '뽕할머니' 설화와 곡성군의 '도깨비' 설화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 전통소재 캐릭터 개발 지원사업은 지역에 가지고 있는 전통예술과 역사 등의 문화자원을 캐릭터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진도군은 뽕할머니 설화를 바탕으로 신비의 바닷길 축제와 연계한 레인부츠, 휴대폰줄, 스토리북 등의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게 되며, 곡성군은 섬진강 도깨비 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해 도깨비 방망이, 봉제인형, 팬시상품 등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상품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진흥원은 사업비 3억2800만원을 들여 내년 4월까지 캐릭터 상품개발 전문기업과 공동으로 상품개발을 완료하고 각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판매는 물론 이를 활용한 부가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필수기자 bungy@

뽕장어 등 8종 73만마리 방류

올해 전남 47개 수역 1만1885ha에

전남 해양수산과학원은 올해 전남 지역 12개 시·군 47개 수역 1만1885ha에 뽕장어 등 내수면 수산종묘 8종 73만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방류 예정인 종묘는 뽕장어·쏘가리·동자개·잉어·붕어·메기·자

라·동남참게로, 방류 시기는 6월 중순부터 10월까지이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통해 어업인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방류를 주관하는 전남해양수산과학원 내수면시험장은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뽕장어 등 9종의 수산종묘(어린 물고기) 22억여 마리를 방류해 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자연생태계 파괴 등으로 날로 감소하고 있는 내수면 수산자원 회복에 앞장서 왔다.

임여호 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내수면 수역인 강·하천·호소 등에 지역여건에 적합한 건강한 인공종묘를 대량 방류하고 방류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질병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국민권익위원회

사단법인 반부패국민운동 광주광역시연합 창립기념식 및 반부패궐기대회

모시는 글



〈창립추진위원장〉 박길무

부패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최근 국가 최고위 인사들의 부패와 관련된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자괴감과 실망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부패 문제가 계속 심화될수록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점점 커지고 이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점점 뒤쳐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주의, 청탁, 접대 및 전관예우 등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다양한 부패 문제를 조망하고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온 국민권익위원회 사단법인 반부패국민운동 광주광역시연합은 투명한 지역사회 건설과 부패의 발본색원을 위한 여러분의 의지와 힘을 함께 모으고자 '반부패 국민운동 광주광역시연합' 창립기념식 및 반부패궐기대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 뜻 깊은 자리에 부디 함께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 고문 | 김양균 (변호사, 전. 초대헌법재판관) 김장환 (전. 전라남도교육감) 윤귀환 (거자서교회 원로장로, 보명실업회장) 김관재 (변호사, 전. 광주고등법원장)

- 일시 | 2012년 6월 26일 (화) 14:00~
- 장소 | K.T (3층) 회의실(동구청 옆)
- 주최 | 국민권익위원회 사단법인 반부패국민운동연합
- 주관 | 국민권익위원회 사단법인 반부패국민운동 광주광역시연합
- 후원 |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교육청·광주일보사·호남일보사 매일방송(주)에버뉴스

사무실 | 광주광역시 남구 서동 236번지 (2층) ☎ (062)228-4747(대)

국민권익위원회

(사)반부패국민운동 광주광역시연합

창립추진위원장 박길무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